

Knut Heim 박사, 잠언, 5강

잠언 1-9장 하이라이트

© 2024 크누트 하임(Knut Hei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Dr. Knut Heim입니다. 다섯 번째 세션은 잠언 1-9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잠언에 관한 다섯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섯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시 해석 방법에 대한 현대 연구의 영향을 조금 더 탐구하고 그것이 잠언에 대한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다음 하나의 사례 연구만 사용하겠습니다., 즉 잠언 3장에서 시 해석 방법에 대한 강의 5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배운 내용 중 일부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 21세기 전반은 성경의 시를 연구하기에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언어와 문학의 학자들은 시에 대한 흥미롭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으며,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대 언어학과 나는 시의 상상력이 풍부하고 능숙한 해석에 기여하는 현대 언어학의 일부 분야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다양한 현대 방법론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 첫 번째는 현대 언어학이 어떻게 단어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획득하는지, 그리고 단어 조합이 어떻게 개별 부분의 의미의 합을 훨씬 능가하는 의미를 생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호함을 좌절이 아닌 자산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히브리 시 학자들은 우리가 시적 평행법에 대한 단순한 생각을 극복하고 히브리 시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 강의 중 하나에서도 중점을 두었던 부분입니다. 현대 비평 이론은 우리가 친숙한 텍스트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하도록 영감을 주고, 텍스트의 현대적 관련성을 재발견하도록 초대하며, 시의 변형적 의미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은유에 대한 현대 연구, 그리고 앞으로 한두 번의 강의에서 은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은유에 대한 현대 연구는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말할 때 사용하는 은유가 어떻게 우리의 사고와 삶을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해석학은 우리가 겸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그 유명한 인용문, 여러분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가톨릭 학자인 루이스 알론소 쇼켈(Luis Alonso Schökel) 이 말했듯이 상상력으로 쓴 것은 상상력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하곤 했다. 그렇다면 여러 면에서 히브리 시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는 마음의 새로운 영역, 해석적 상상력이 활짝 열려 있는 땅에 도착했으며, 우리의 삶과 정치적, 문화적, 윤리적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를 사회에 더욱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결과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이제 그러한 상상력이 풍부하고 책임감 있는 기독교 독서에는 기술과 상상력이 필요하며, 교회와 회당은 이러한 해석적 덕목을 습득하도록 도전받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시적 은유는 엄청나게 강력하며, 선을 위한 힘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악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남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공동선을 위해 책임감 있고 능숙하게 적용되는 유익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적이고 능력이 부족한 해석은 선의의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오도하고 일반 문화 환경에 현재 존재하는 편협하고 위험한 전제를 확증하는 위험한 함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구약 율법의 윤리적 관련성에 대한 중요한 연구에서, 저명한 구약 학자 고든 웬햄(Gordon Wenham)은 법이 입법자의 이상과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것 사이의 실용적인 절충안인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은 이상적인 것은커녕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하고 윤리적 한계가 아닌 수용 가능한 행동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나는 그들이 입법자들의 이상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관용의 한계만을 폭로한다고 인용합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대조적으로, 나는 잠언의 시를 포함하여 성경의 시가 우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단어와 문구, 강력한 생각과 감정, 윤리적 도전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백성의 꿈과 희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잘못된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성취되고 목적 있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엿보십시오. 이제 나는 잠언서의 특정 사례 연구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3장 9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영에 관한 시입니다. 잠언에서 매우 눈에 띄는 영역이자 주제이며 나중에 우리 시리즈의 강의 중 하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간단한 지시가 있는데, 이는 종종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번영을 가르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즙틀에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반복하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즙틀에 포도주가 넘치리라. 물론 이 두 구절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번영 복음 형식의 설교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피상적으로 읽으면 실제로 두 가지 관련 아이디어, 즉 하나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됩니다. 첫째, 이 구절들은 경건이 자동적으로 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그들은 교회 사역이나 기독교 사역 조직에 관대하게 돈을 기부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번영, 특히 재정적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수입의 10분의 1인 소위 십일조를 바치라는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전파 활동에는 충실하고 관대하며

심지어 희생적으로 기부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정기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이 구절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구절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곧 알게 되실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명백히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10절은 그들의 창고가 복수형이고, 그들의 독이 다시 복수형이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이 자신만의 헛간이나 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헛간과 통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히 부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 구절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번영 복음을 제공하기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진정한 복음을 구성합니다.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들은 단지 정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여러 개의 헛간과 통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통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격려받습니다. 그러한 방향 전환과 관대함에 대한 동기는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창고는 가득 차고, 포도주 통은 가득 차서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어떤 기부를 해도 기부자의 부를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헛간과 통은 비어 있거나 반쯤 채워지지 않고 완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기부는 주는 사람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기부가 기부자를 과잉 없이 잉여 수준까지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헛간과 통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주는 사람을 과잉 없이 잉여 수준까지 풍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곡식과 포도주로 더 많은 헛간과 더 많은 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번영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넘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취적인 사업가들이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점은 사업 확장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관대해질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더욱 관대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력이 풍부한 해석이 계속되어 이 신비한 풍요로움에 의해 기발하게 촉발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관대하게 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 놀라운 조언의 시적 디자인에 독창적으로 구축된 분명한 대답은 이것이다.

쥬! 그것으로 주님을 공경하십시오! 넉넉한 너그러움이 넉넉한 풍요를 낳는 선순환을 이어가세요.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부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의 변영을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보게 되겠지만, 히브리어 성경 구약의 시에는 감동시키고, 치유하고,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도 우리는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시를 읽으려면 기술, 상상력,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석적 미덕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력, 헌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석 기술에 대한 그러한 투자의 결과는 풍부하고 보람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공동선을 위해 참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청취자들 모두가 이것이 현대 세계의 기독교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기 위해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감리교회의 안수 목사이자 기독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시에 기독교 신학자이자 기독교 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잠언에 관한 이 강의에서 내가 공유하고 있는 많은 내용을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 기독교 구약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더 큰 해석학적 맥락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오늘날 현대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진술을 다소 도발적이고 고의적으로 도발적이지만 약간의 농담, 가벼운 마음, 유머러스한 진술이라는 제목 아래에 넣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구약이 신약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약성경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또는 적어도 직접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의해 약 100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28절이나 누가복음 9장 27절과 같이 복음서에 암시된 것처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관점에서 썼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다가올 삶이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했듯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부활에 비추어 보면 이 지상 생활의 도전과 기회는 주변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대부분은 독자들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주변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시가 없고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대조적으로, 구약성경, 예수와 제자들의 성경은 약 1,000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존재의 대부분을 강력한 적들에 둘러싸여 포위된 소수로 구성된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적, 육체적 결함과 승리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개인, 위대한 영웅, 신앙의 여주인공들의 투쟁과 승리를 생생하게 그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쁨의 노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뇌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잠언의 저자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가장 깊은 감정과 두려움, 가장 큰 기쁨과 통찰력, 그리고 탁월한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요컨대, 구약성서는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 백성의 신앙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 기독교 신앙과 실천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거의 2,000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의 대부분을 통해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처럼 포위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대략 서기 300년부터 1900년까지의 유럽과 18세기부터 현재까지 북미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지만,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세계 대부분에서는 확실히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서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놀라운 승리와 비극적인 실패를 겪었습니다. 교회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인류에게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보물 중 하나인 히브리어 성경, 구약성서, 신약성서를 현대 유대교와 공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교회에게도 구약성서, 특히 그 시는 잘 사는 삶,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감, 인간의 자기 확장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영감, 그리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위해.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Knute Heim입니다.

이것은 잠언 1-9장을 강조하는 다섯 번째 세션입니다.